

문서선교회, 1998.

_____. *Saved by Grace*. 류호준 역. 『개혁주의 구원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8.

Moltmann, Jürgen. *Das Kommen Gottes*. 김균진 역. 『오시는 하나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Quistorp, Heinrich. *Calvin's Doctrine of the Last Things*. 이희숙 역. 『칼빈의 종말론』. 서울: 성광문화사, 1990.

Torrance, T. F. *Kingdom and Church*. 백철현 역. 『종교 개혁자들의 종말론』. 서울: 기민사, 1987.

5. 학술논문

배정훈. "구약성경에 나타난 종말". 『성서마당』 vol. 109(2014 봄).

6. 주석류

Brown, Raymond E. *The Anchor Bible: The Gospel According to John(XIII-XXI)*. 최홍진 역. 『앵커바이블, 요한복음 II: 영광의 책』.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2013.

Janzen, J. Gerald. *Job*. 한진희 역. 『현대성서주석: 욥기』.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2007.

Johnston, William B. *Calvin's Commentaries: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Hebrews and The First and Second Epistles of ST. Peter(vol. 22)*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4.

Mackenzie, Ross. *Calvin's Commentaries: The Epistles of Paul The Apostle to the Romans and Thessalonians*.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3.

Parker, T. H. L. *Calvin's commentaries The Epistles of Paul The Apostle to the Galatians, Ephesians, Philippians and Colossians*.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4.

7. 사전류

Balz, Horst and Gerhard Schneider. *Exeget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3 vols,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4.

가톨릭대학교 고전라틴어연구소 편찬. 『라틴-한글 사전』. 서울: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2012.

칼빈과 기다림의 종말론

배경식 (한일장신대 명예교수, 조직신학)

종교 개혁자들의 초기신학에서 그들의 주된 관심은 구원론이었기 때문에 종말론에 관한 내용이 약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루터의 신학의 주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것인가?”였다. 이러한 관심은 그의 설교와 교리 문답 등 그의 모든 저작들 가운데에서 나타나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 인간의 죄, 율법과 복음, 그리스도, 신앙, 의인 등 신앙의 근본적인 원리들을 다루었다.¹⁾

개혁신학의 틀을 제공한 칼빈의 경우 신학적으로 루터와 츠빙글리의 중간 입장에서 어거스틴을 받아들였다고 보여 진다. 성찬론에서 칼빈의 가르침은 순수한 상징주의도 아니요(츠빙글리) 실재론적인 것도 아니며(루터)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이었다.²⁾ 그의 주저서인 『기독교강요』는 신론과 그리스도론, 성령론 그리고 교회와 국가라는 네 가지의 틀로 구성되어있다.

종말에 관한 사고를 역사적으로 되짚어 보면 당시는 지금처럼 체계적인 국가를 이루지 못한 상황하에서 주변 외국인들의 잦은 침략과 견잡을 수 없는 페스트의 창궐이 개인이나 교회 그리고 국가의 종말에 대한 생각을 부분적으로 야기 시켰을 것이다. 특히 터키인들이 메뚜기 떼처럼 일어나 전 유럽

1) J. L. 니브, O. W. 헤이그, 서남동 역, 『기독교교리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p. 430.

2) Ibid., p. 536.

을 휩쓸고 지나던 전투적인 절박한 상황에서 기독교적인 분위기를 가진 유럽 사회에 종말을 예고하는 예언적인 신앙적 글들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를 대변하는 최초의 글로는 기독교가 국교가 된 이후 세계를 제패하던 로마제국이 이방인들로부터 침범을 당하고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수모를 당한 것에 대한 내용을 피력한 어거스틴의 신국론(De Civitate Dei)이 있다.³⁾

중세 로마제국이 십자군전쟁을 치루는 동안 기독교는 동서로 나뉘어져 패권다툼을 일삼다가 동로마제국이었던 비잔틴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의 터키인들의 수중에 들어가 이스탄불이라는 이방의 도시가 되어버렸으며 그곳에 있는 소피아 성당을 위시하여 기독교의 역사적인 성물들이 그들의 수중에 들어갔다. 현재 터키를 유럽연합에 가입시키는 조건으로 유럽연합이 소피아 대성당을 반환하라는 조건을 걸어 협상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과거의 동방기독교의 성지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더욱이 그곳은 아시아에서 유럽을 오가는 관문이라는 것에 큰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칼빈의 종말론은 그의 주저서인 기독교강요 제III권 9장 “미래의 삶에 관한 묵상”과 25장 “최후의 부활”과 그의 주석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특히 재세례파들과의 영혼수면설에 관한 논쟁에서 나온 싸이코파니아(Psychopannychia)⁴⁾는 칼빈의 중간상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

3) 어거스틴이 살던 시기는 역사의 격동기였다. 내적으로는 도나티스트의 공세와 소아시아 지방에서의 펠라기우스의 교리논쟁이 심했으며 고트족의 지속적인 침략과 위협아래 경제적 곤란과 도덕적 타락이 심화되고 있었다. 로마가 다니엘서에 예언된 4개의 위대한 왕국 가운데 마지막 왕국으로서 영원한 로마로 생각하였으나 410년 고트족에 의한 로마의 몰락은 기독교인들과 이교도들에게 깊은 충격과 분쟁을 불러 일으켰다. 기독교인들은 이 사건을 종말의 전조로 본 반면 이교도들은 로마를 지키는 태양신을 배반한 결과로서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돌렸다. 이에 히포의 집정관 마르셀리우스의 요청에 의해 어거스틴은 22권으로 이루어진 『신의 도성』이라는 방대한 저작을 내어 놓았다. 참조: 조성노 편, 『역사와 종말』(서울: 현대신학연구소, 1992), p.

4) 이 논문은 칼빈이 1536년 쓴 소논문으로써 영혼이 사망 후 최후심판까지 잠들어있다고 생각하는 무지한 자들의 오류를 반박하는 글로써 그 단어의 의미는 영혼이 깨어있음을 말한다. 여기

이 되는 문서이다. 동시에 종말에 관계된 성경구절을 해석한 그의 주석서는 구체적으로 종말이해에 도움이 되고 있다.

I. 한국에서 칼빈의 종말론 연구

한국칼빈학회와 한국조직신학회에서 발표한 논문들 가운데 칼빈의 종말론을 다룬 논문들은 45편이 된다. 칼빈연구 제2집에서 최윤배는 ‘부처와 칼빈의 종말론’이라는 주제라는 글에서 토렌스(T. F. Torrance)를 인용하여 “루터의 종말론은 신앙의 종말론, 부처의 종말론은 사랑의 종말론 그리고 칼빈의 종말론은 소망의 종말론”이라고 규정하였다.⁵⁾

김은수는 칼빈의 종말론을 다루면서 “칼빈의 영혼불멸교리와 개인종말론에 대한 소고”라는 제목을 정하고서 이 두 가지의 불가분리의 관계성을 피력하였다. 개인종말론에 관한 중간상태 육체의 부활이 영혼불멸설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⁶⁾

황정욱은 칼빈탄생 500주년기념 논문집인 칼빈신학개요에서 “칼빈의 종말론”이라는 주제로 칼빈의 초기작품인 싸이코파니아(Psychopannychia)와 기독교강요 그리고 칼빈의 종말론 연구서인 퀴스토르프(H. Quistorp)의 책 『칼빈의 증언안에서 마지막 일들』(Die letzten Dinge im Zeugnis Calvins)을 재평가했다.⁷⁾

에서 다룬 것은 영혼불멸에 관한 것이며 1531년 아버지 제라르의 죽음에 관한 개인적인 사후의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1549년 아내의 죽음 앞에서 지상의 삶은 순례의 길이며 영생복락에 관한 확고한 소망을 전하며 기도했다.

5) 최윤배, “부처와 칼빈의 종말론”, 『칼빈연구 제2집』(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p.235-257.

6) 김은수, “칼빈의 영혼불멸교리와 개인종말론에 대한 소고”, 『칼빈연구』, 제5집(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8), p.191-233.

7) 황정욱, “칼빈의 종말론”, 『칼빈 1: 칼빈신학개요』(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9), p.209-226.

최근에 한국조직신학회에서 발간한 기획시리즈 종말론에서 양신혜는 “칼빈의 종말론”을 기독교강요 제III권 9장 “미래의 삶에 관한 묵상”과 25장 “최후의 부활”과 칼빈의 최초 신학저서 싸이코파니키아(Psychopannychia) 그리고 그의 히브리, 요한복음 그리고 공관복음 주석서를 중심으로 전개하였다.⁸⁾

II. 구원사역으로서의 종말

종말은 문자적으로 볼 때 세상 끝을 의미한다. 이것을 종말론이라는 것으로 이론화 시키면 “세상 끝에 관한 교리”(Die Lehre von den letzten Dingen)이다. 기독교 신학에서 종말을 창조신앙과 결부시켜 보면 종말은 창조에 포함된 모든 피조물이 마지막인 끝을 갖게 된다는 것을 전제한다. 여기에서 언급되는 피조물은 천체와 동식물을 포함한 자연만물로부터 시작하여 인간에 이르기까지 전 우주적인 것들을 다 포함한다.⁹⁾

칼빈은 바울을 인용하여 모든 피조물이 ‘주 예수의 구속을 기다리는 자들의 동반자’(롬 8:23)라고 말하고 있다. 금지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자연의 질서에 혼란이 왔을 때 모든 피조물이 저주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에겐 지각이 없을 지라도 그들은 자연히 타락전의 완전한 상태를 동경한다. 바울은 그들을 ”탄식하며 고통한다“고 하였다(롬 8:22).”¹⁰⁾

기독교의 역사관은 생성소멸을 반복한다고 하는 불교의 순환사관적이거

8) 양신혜, “칼빈의 종말론”, 『종말론』- 한국조직신학회 기획 시리즈 4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p.141-158.

9) 종말은 “계약의 성취”(Bundesvollendung)이다. 종말의 구원은 이 세계가 완성에 연관된 소망을 가질 때이다. 그것은 죽은 전통의 교리가 아니라 생명의 영을 소유한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생명의 소망’(ἐλπίς ζωσα)이다. J. T. Beck, 『Vorlesungen über Christliche Glaubenslehre』 Zweiter specieller Theil (Gütersloh: Druck und Verlag von C. Bertelsmann, 1887), p. 668f.

10) 존 칼빈, 편집부 번역, 영한 『기독교강요』(서울: 성문출판사, 1993), p.913.

나 헬라의 자연주기적인 것이 아니라 시작과 끝을 전제로 하는 선적인 것으로 히브리적 역사관의 영향을 받았다.¹¹⁾ 시작과 끝이라는 말은 종말론적인 표현으로서 성경은 이것을 알파(α)와 오메가(ω)라고 한다. 이다. 주님이 창조와 종말의 주인임을 언급하는 부분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전 우주가 종말을 갖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대변혁을 가져 올 것이다. 이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종말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종말의 년도를 계산해 내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해왔다.

칼빈에게서 종말은 단순히 세상 끝에 관한 교리가 아니라 종말의 기간을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하여 재림에 이르는 기간으로 규정하였다. 종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하여 재림과 함께 끝난다고 보았다. 칼빈의 종말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과 연관을 갖기 때문에 그의 종말론은 기독교론적이다. 칼빈에게서의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그의 재림에서 끝나며 완성된다. 종말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함께 종말이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already, not yet).¹²⁾

개신교 역사에서 종말의 정확한 날자는 알 수 없으나 종말의 시기는 알 수 있다고 말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종말에 관한 예언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다. 마치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예고한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11) 조성노 편, 『역사와 종말』(서울: 현대신학연구소, 1992), p.14. 고대 그리스인들은 우주는 하나의 경계를 가진 밀폐된 실체이며 시간이라는 중심을 축으로 하여 동일한 궤도를 순환하는 수레바퀴적인 것으로 이해했다. 이것은 역사를 자연과 천체의 규칙적인 운행에서 유추하게 했으며, 계절의 순환으로부터 역사도 순환한다는 생각을 낳게 했다. 그들은 자연을 통해 역사를 보았고 따라서 세계를 생성과 소멸의 순환으로 본 것이었다.

12) “예수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에게 과거이다. 그 과거가 우리에게 ‘이미’이지만 하나님의 절대 시간인 미래는 우리에게 ‘아직 아님’속에 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아님’ 속에 살고 있다.” 정기철, 『시간문제와 종말론』, 시간의 철학과 시간의 신학(서울: 한들출판사, 2000), p.11.

재림을 예고하려 했다.¹³⁾

독일 서남쪽 슈바벤(Schwaben)지방의 경건한 신약성서신학자 벥겔(J. A. Bengel)은 그의 신약성경 주해인 Gnomon(지시서)에서 계시록 13:18절을 중심으로 예수의 재림년도를 1836년으로 규정한 적이 있다.¹⁴⁾ 다행히 그는 “그 때에 예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언급을 함으로써 빠져 나갈 길을 제시했다. 벥겔을 존경하며 그의 신앙적인 영향을 받은 일부의 사람들은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특정한 장소에 모여 히브리어를 배워 예수님과 소통하기를 준비했다는 일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한국의 길선주 목사님은 유교학자로서 개종하여 계시록을 일만 번 이상 읽고 외우기까지 하시면서 재림의 연대를 1939년이나 2002년으로 조심스럽게 추정하기까지 했다.¹⁵⁾ 지금도 이와 비슷한 시도는 계속되어지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이장림이 이끌던 다미선교회가 1992년 10월 28일 24시 예수님의

13) 한인수, 『순례자의 식탁』, 제10권(서울: 도서출판 경건, 2012), p.197. “어떤 분들은 재림의 날과 시는 감추어져 있으나 년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재림의 년도를 제시했으나 낭패를 당했다. 대표적인 것이 여호와의 증인이다. 재림의 시점 계산보다 더 불신앙적인 것은 재림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이다. 기독교회는 재림을 대망하는 공동체이다. 재림신앙이 약화될 때 교회는 생동감을 잃게 되고 현세주의와 세속주의에 오염되어 영적 타락을 면 할 수 없다.”

14) 배경식, 『경건과 신앙』(서울: 장로교출판사, 1988), p.213. 벥겔은 이 절을 해결하기위해 7페이지를 할애했다. 계시록 13장에는 짐승들의 출현이 나오는데 첫 번째 짐승들은 믿음과 인내로, 두 번째 출현은 지혜로 이겨낼 수 있다고 했다. 성도들은 믿음과 인내 그리고 지혜로 세상의 어떠한 환난도 이겨낸다는 말이다. 참조: J. A. Bengel, Gnomon, Zeiger des Neuen Testaments, eine Auslegung desselben in fortlaufenden Anmerkungen, Zweiter Band, C. J. Werner(Hrsg.)(Basel: Druck und Verlag von Ferd. Riehm), p. 832-838.

15) 허호의, 『길선주 목사의 목회와 신학사상』(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p.332ff. 길선주목사는 “재림의 일자는 알 수 없으나 그 기한은 알 수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한다. 그 이유로는 “초림시에 세례요한이 그 길을 예비하신 것 처럼 재림시에도 성신이 반드시 오셔서 신자의 총명을 열어 주님의 오실 시기를 깨닫게 하시고 준비시키신다”는 것이다. 1939년은 하루를 일년으로 계산하여 안식의 숫자인 7을 곱한 후(360x7=2520) 바벨론 포로 연도인 606을 뺀 1914년에 유대나라가 망하기 시작한 21년을 더하고 주 탄생 연대 4를 더하면 1939년이 나온다. 모세가 주전 1498년 처음 회년의 안식을 누렸는데 천년안식은 70회의 회년이 지나는 3500년이며 3500-1498=2002로 계산하였다. 1939년 설은 훗날 길진경이 편집한 『영계 길선주 유거선집』(1968)의 『말세학』에서 눅 21:20의 이방 기약에 근거하여 선천이 일년을 360으로 계산한 것을 수정하여 365로 하면(365x7=2555) 1939년이 아니라 1974년이 나온다고 했다.

공중재림을 주장하면서 사회적으로 씻을 수 없는 해악을 끼치고 말았다.¹⁶⁾ 이러한 주님 재림에 관한 연대 계산은 사회경제적 경제적 착취와 억압, 종교적 탄압의 상황 하에서 주어지는 현실도피적인 면과 축자 성경영감해석 그리고 일시적인 심리적 위안을 받으려는 세대주의적 성경해석이다.¹⁷⁾

최근 한국교회 주변에서 우리는 또 다시 재림신앙을 거론하면서 벨리 칩과 666을 거론하면서 요한계시록의 강좌를 개설하는 선교단체들이 있다는 소식을 심심치 않게 접한다. 이들은 문자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인영하면서 그곳에 나오는 세 번의 화에 대한 언급과 흰옷 입을 14만 4천, 7년대 환난 등을 거론하면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갖게 한다.

한국교회의 이름을 추락시키고 있는 박0선의 전도관에서부터 시작하여 문0명의 통일교, 이0희의 신천지, 장0자의 하나님의 교회등의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면서 사람들을 규합하여 자기의 세력과 지상왕국을 건설하고 있다.

요한 계시록에 관한 루터의 견해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가치 평가가 제대로 되지 못했으며 칼빈은 성경으로 받아들이며 인용은 했으나 주석을 하지 않은 해석이 어려운 책이었음을 알게 된다.

16) 다미선교회는 이장림이 이끌던 기독교를 가장한 사기집단이다. 그는 1987년 「다가올 미래를 준비라」라는 소책자를 만들어 1992년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휴거가 일어나며 1999년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평가한다. 당시는 중동에서 걸프전이 일어나는 등 세계적으로 종말을 예시하는 덧한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었다. 결국 이장림은 1992년 9월 24일 사기 및 외환관리법으로 구속되었다. 현상이 일어난 것은 기독교가 너무 귀족화되고 세속화되어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

17) Ibid., 342ff. 길선주의 『말세학』은 1922년에 출간된 소안론의 세대주의적 천천년설에 근거하여 지구개조(영존)와 이중 낙원설 『목시록 공부』와 유사한 점을 갖는다. 길선주는 천상, 지상, 지하의 삼계사상, 신천지지의 개벽사상, 지상 평화 세계의 천지인의 조화 등으로 한국적 말세 삼계설을 말한다. 이를 통해 성서적 종말론의 두 전통인 예언적 종말론과 목시적 종말론을 수용한다. 전자는 하나님의 뜻이 역사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후자는 하나님의 뜻이 초자연적인 종말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한다. 예수시대에 열심당은 전자를 옛세테파는 후자를 주장하였으나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마 6:10)고 가르치셨다.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학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종말이 기독교 신앙과 신학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매우 크다. 기독교 신학에서 종말에 관한 언급이 없다면 신학은 마치 용두사미가 될 수밖에 없다. 지붕이 없는 집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종말론을 “세상 끝에 관한 교리”라고 전제하면서 성경을 중심으로 정립해 나갈 때 중심 본문 어느 곳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 그 해석의 방향은 전혀 달라진다.

한국의 개신교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 원인으로 수많은 교단의 난립과 신학적 소양이 부족한 무자격 목회자 양산, 개교회중심주의, 교인들의 윤리도덕 수준의 저하 등을 들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재림신앙에 대한 무관심과 종말을 대하는 열광적 태도가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지난 1992년 10월 28일 이0립을 중심으로 하는 다미선교회가 그 날을 ‘주님 공중재림의 날’이라고 공공연히 말하면서 그날 밤 12시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대대적인 선전을 했었다.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자신들의 몸이 휴거되기를 기다렸으나 그것이 일어나지 않자 슬그머니 꼬리를 감춰버린 일의 수가 없다. 그들은 대국민 사기극을 저지르고 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어디선가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금은 어떤가? 길거리에 나가면 베리칩(verichip)을 맞으면 확인을 받는 것이라고 하면서 계 14:9절을 증거로 대는 무책임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모든 미국인들은 2017년까지 강제시행으로 피부아래 베리칩을 받아야 하며 그것을 받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어 페마 수용소에서 단두대로 목이 잘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한다. 과연 그러할까?

베리칩이란 말은 확인칩(verification-chip), 긍정칩(positive chip), 의료용 생체칩, 바이오칩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쌀알 만한 크기로 이마나 손의 피부 밑에 삽입하여 신분증과 신용카드, 유전자 조작, 위치 추적용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을 마치 이마에 확인 맞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을 보면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들은 컴퓨터가 일반 대중에게 보급될 시기에는 바코드가 666 숫자라고 하더니 이제는 다시 베리칩을 확인 맞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종말에 필요한 ‘독립된 계시의 책’이라고 주장하면서 두려움과 공포의 종말론을 조장하고 있다. 계시록을 다른 계시로 보면서 비유풀이나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¹⁸⁾ 앞에서 언급한 베리칩이 꼭 필요한 시대가 온다면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해 예방주사를 맞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다.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 이마에 확인 맞는 것 등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종말의 예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말론자들이 이것을 부각 시키면서 자신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공포를 조성하게 되면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학업이나 생업도 포기하고 가정을 해체시키고 사회에 문제를 야기할 뿐이다. 이것은 개신교를 빙자한 이단 세력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한국에는 자칭 재림주가 50여 명이 넘는다.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문0명, 박0선이었으며 지금은 이0희, 장0자가 남아 있다. 이들은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사교를 만들어 교인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그곳에 빠져 넘어가 인위적인 성경해석에 놀아나는 사람들을 대하면 안타깝기만 하다.

1892년 요한네스 바이스(J. Weiss)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Die Predigt Jesu vom Reiche Gottes)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예수의 선포가 신약성경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¹⁹⁾ 이를 통해 종말론은 단지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별도의 것이 아니라 성경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18) 오명현, 『신천지(이만희)의 요한계시록 허구에 대한 변론』(서울: 도서출판 엔크, 2015), p.34f.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는 계시록을 환상계시와 실상계시로 구분한다. 환상계시는 예인으로서 사도요한이 한 것이며 실상계시는 성취에 해당하며 자신이 실상을 이루는 자라고 함으로써 자신이 약속의 목자, 이긴 자, 재림주, 보혜사라고 칭하고 있다. 또한 신천지가 계시록을 비밀의 책이라고 전제하고 그 비밀을 풀 수 있는 자를 교주 자신이라고 주장한다.

19) 스테펜 H. 트레비스, 『종말론 해설』 김근수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8). p.19.

III. 칼빈의 세계관

칼빈의 종말론은 그의 세계관으로부터 시작된다. 특히 그의 주저서인 『기독교 강요』 제 III권 제9장 ‘내세에 관한 명상’과 제25장 ‘최후의 부활에 관하여’를 중심으로 살펴보려한다.

1. 십자가 훈련의 장

칼빈은 이 세계를 개인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이겨내는 훈련의 장이라고 전제한다. 그러나 현세를 혐오하거나 부정하지 말라고 권한다. 그 이유로는 이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손길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에 집착하는 것은 영혼을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 멸망의 상태에 처하게 된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이 주어진다.

인간은 누구나 천상의 영생불멸을 얻기 위해 노력하며 죽음이후의 영생에 대해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도 인간 본성이 세상에 대해 야수와 같은 애착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훈련이라는 적절한 방법으로 그 자녀들을 깨우치신다. 인간 자신들이 세운 놀라운 계획과 노력,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각은 우둔해져서 탐심과 야욕, 정욕 등에 사로잡혀 전 영혼이 육의 유혹에 빠져 지상에서의 행복을 추구한다.

십자가의 훈련이 무엇인가? 인간이 세상에 대해 갖는 애착을 멀리하는 모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한 상태를 막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것을 너무 신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추방과 흉작, 화재와 가난 등을 통해 적절히 제한하신다. 가까이에서는 아내의 비행과 자녀들의 부도덕한 일들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인간은 세상에 대한 집착과 교만함과 들뜬 허영심에

서 떠나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본다. 그곳에만 참된 행복과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²⁰⁾

이 세상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들어갈 예비 장소로서 감사의 생활이 넘쳐야 한다. 그 나라의 영광과 비교하면 감히 견줄 수 없으리 만치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한다. 세상의 삶을 칼빈은 전투에 비유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천상에서 받을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도록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고 그것을 간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칼빈은 여기에서 신앙인들이 취할 태도를 세상에 도취되어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에 집착하지 말라고 한다. 그러난 인간의 심정에 욕심과 야망이 지배하게 되면 인간의 영혼은 땅위의 것만 찾게 된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일깨워 주고 내세를 사모하도록 고난과 환난을 주신다고 하고 있다. 그 환난은 전쟁과 기근, 화재와 질병 그리고 인간의 삶을 어렵게 하는 모든 것들이다. 오늘의 용어로 말하면 사업실패와 가정 파탄, 불의의 교통사고, 인간관계 단절 등 수없이 많다. 이것을 한국사회와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지난 2014년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사건, 2015년 5월 말 부터 2-3개월 동안 한국을 강타한 메르스의 공포도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게 주신 하나의 대표적인 깨우침 중의 하나이다. 이를 통해 한국교회가 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기를 바라시고 계신다. 교인들의 기도를 통해 정치가 바로 서고 사회가 정화되기를 바란다.

20) 『기독교강요』 III, 9, 1, p.359f.

2. 신앙적 싸움터

칼빈은 인간의 생 자체를 미약한 존재로 보았다. 연기와 그림자(시 102:3, 11) 하루살이 동물(εφήμερον, 에페메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서 신앙인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세상 것을 중요시 하면서 집착하지 말고 장차 올 세상에 대해 명상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지상의 삶은 하늘나라의 영광을 준비하는 삶이다.

지상의 삶은 우선적으로 하늘나라에서 쓰게 될 면류관을 얻기 위해 싸우는 장소이다. 싸움의 대상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한다. 육이 추구하는 모든 욕망과 행복추구, 안일함과 게으름을 물리치고 육으로부터 자유 함을 얻어야 한다.

칼빈은 인간의 지상의 생활을 타국이나 감옥, 무덤으로 표현하고 있다. 지상의 생활은 고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 갈 임시숙소일 뿐이다. 사도 바울 역시 육신의 굴레를 한탄하며 구원을 갈망했다(롬 7:24).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은 최상의 행복이다. 지상의 삶이 설령 보초를 서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위해 준비가 되어있다면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확신에 차있게 된다.

지상의 삶이 싸움터라고 하면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이다. 싸움터에서 죽음은 끝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칼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음 앞에서 불안해하는 것은 지상의 삶만을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육체의 장막은 불안정하고 불완전하며 부패하기 쉽고 무상하고 쓸모없고 시들어가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지상의 삶에서 죽음을 극복할 힘은 어디서 올까? 하늘의 영광으로 새로워진다는 믿음에서 이다. 이 믿음을 통해 인간 본성이 두려워하는 죽음을 극복하게 된다. 칼빈은 이 믿음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죽음을 통해 우리가 타국으로부터 소환되어 고국, 즉 하늘나라로 돌아가 살게 된다고 생

각한다면 이 사실에서 우리는 아무런 위안도 얻지 못하겠는가?” 타국으로부터 소환되어 고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죽음은 어떠한 것으로 비유될까? 죽음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육신의 옷을 벗고 더 완전한 옷을 덧입는 신성하며 사모할만한 것이다(고후 5:2-3). 이러한 완전한 옷을 입는 사모함은 인간에게만 주어질까? 칼빈은 전 우주적임을 말하고 있다. “사나운 짐승들과 나무나 돌 같은 무생물까지도 자기의 현존의 허무를 느끼고 부활의 마지막 날을 동경하며,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더불어 허무에서 놓여나기를 갈망한다(롬 8:19 이하).”²¹⁾ 여기에서 칼빈은 신자들의 죽는 날과 종말의 부활은 기다림의 대상임을 분명히 한다. 자신의 죽는 날과 종말의 부활을 기쁘게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딤후 2:13, 딤후 4:8).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주로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그의 구속과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전한 견해를 가지고 육의 맹목적이고 우매한 욕망이 저항한다 하더라도 주저없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것을 가장 행복한 일로 생각해서 동경할 뿐 아니라, 신임과 탄식으로 기다려야 한다.”²²⁾ 재림주로 오시는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지상의 생인 싸움터에서 직면하게 된 불행과 악에서 구해내시고 새로운 생명과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신다.

3. 내세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곳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참된 신자들은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에 거하는 동안 ‘도살당할 양같이’(롬 8:36) 되어야 한다. 칼빈은 이 말을 「기독교강요」 헌사에서도 사용한 적이 있다. 복음주의자들인 개신교도들에게 행해지는 가

21) Ibid., p.369.

22) Ibid., p.371.

톨릭교도들의 야만적인 분노가 감금, 채찍, 고문, 절단형, 화형 등으로 가해질 때 믿음의 사람들은 ‘도살당할 양같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심각한 실존의 상황에서 믿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내세를 향한 소망과 기다림이다. 소망은 세상의 고난을 극복하고 현재 상태를 초월하게 하는 힘을 제공해 준다. 비록 악한 사람들이 부와 명예를 누리며 일시적인 평화를 즐기며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소유를 자랑하며 온갖 환락에 빠져 있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이런 사악한 사람들의 간교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며 모욕을 당하며 그들의 탐욕으로 인해 재산을 빼앗기고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신자들은 이런 불행까지도 이겨낼 수 있다. 주께서 그의 평화의 나라로 그의 신실한 백성들을 영접하실 날이 임박하기 때문이다.

주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초대하시는 평화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 날에 주께서는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며’(계 7:17, 참조 사 25:8), ‘영광과 … 환희의 옷을 입히실 것이며, 형언할 수 없는 그의 희락과 단맛으로 먹이실 것이며 송고한 친교에 들어가게 하셔서 결국 그들이 자신의 행복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다.’”²³⁾

주님이 초대하시는 그 나라는 믿는 자들에게는 웃음과 환희가 넘치는 평화의 나라이지만 반대로 불경한 자들에게는 울음과 슬픔으로 가득 찬 공포와 저주의 나라이다. 세상에서 잠깐 호위호식하며 누리던 그들의 사치와 방종은 꺼지지 않는 불로 멸하질 것이며 경건한 사람들을 괴롭히던 그들의 악행은 심판주가 되시는 주께서 고통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이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의 공의로 행해지는 일이다(살후 1:6-7).

칼빈의 세계관은 현세 부정적으로 시작한다. 복음주의자들이 탄압을 받

는 상황에서 이를 신앙적으로 위로하기 위한 칼빈의 입장은 확고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내세를 소망하며 바라보라는 것이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위안이다. 이러한 위안이 없다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믿는 자들은 절망에 빠져 들것이다. 예언자들도 악한자들이 현세에서 오랜기간 번창하게 될 때에 낙담하며 거의 실족하게 되었다고 고백한다(시 73:2-3). 예언자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한다(시 73:16).

이에 대해 칼빈은 “신자들이 눈을 돌려 부활의 능력을 바라본다면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마침내 마귀와 육과 죄와 악한 자들을 이겨낼 것이다.”²⁴⁾ 라고 말한다. 현재의 고난이 십자가를 지는 생활이라면 내세는 분명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일임을 신앙적으로 고백한다. 이를 통해 칼빈은 ‘현세 부정적 내세 긍정 세계관’을 말하고 있다.

IV. 죽음 이후와 중간상태

사람이 죽으면 몸의 영은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한 비기독교적인 견해와 기독교적인 이론이 있다. 먼저 비기독교적인 것으로서는 육체와 영이 한꺼번에 죽어 소멸되거나 육체는 죽어 소멸되지만 영은 영원불변하기에 그대로 지상의 세계를 떠나 천상의 세계에서 심판을 받은 후 살아간다. 육체는 죽으나 영혼은 지상의 삶에 부응하는 다른 거처를 찾아 윤회한다. 기독교적인 견해로 ‘육체는 부패하여 없어지나 영혼이 휴식상태’에 들어간다. 육체가 죽으면 천국에 이르기엔 합당하지 못한 영혼들은 연옥에 가서 정화의 기간을 거쳐 천국에 간다.²⁵⁾ 육체는 소멸되나 영혼이 중간상태에 들어간다는 것 등 다양

24) Ibid., p.373.

25) 가톨릭이 주장하는 연옥에 관한 교리는 사후에 벌에 해당하는 고통과 죽은 자를 위한 기도, 면죄부, 성인들의 잉여은총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정화되어 천국에 간다는 이론이다. 칼빈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속죄의 구원을 무효화 시키는 신성모독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성모독은 유대

23) Ibid., p.371.

한 의견이 있다.

1. 영혼의 안식과 기다림

칼빈은 죽음 이후의 영이 살아 있으며 죽음 이후에도 신자의 영은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개인적인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육체와 영혼의 갈등이 끝나는 시점이다. 영혼은 그 동안 육체라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차원의 세계에서 살아 왔으나 죽음 이후 그것을 초월하여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사는 행복한 시간 속에 거하게 된다. 이것을 낙원, 아브라함의 품, 주님의 품 그리고 중간상태라고 한다.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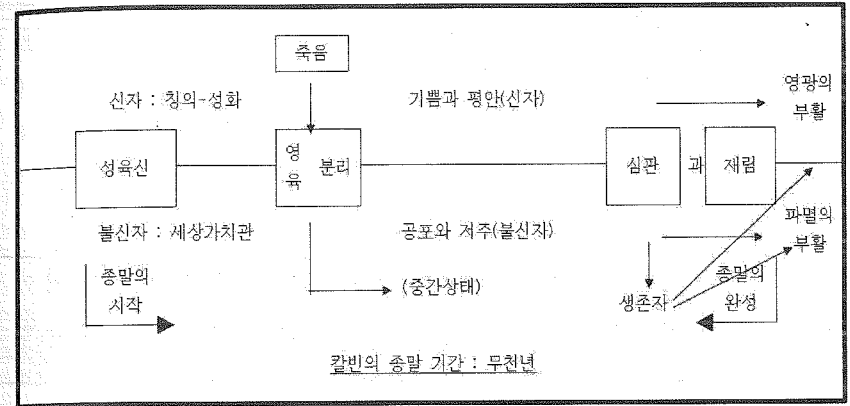
죽은 자의 영혼이 거하게 되는 중간상태에서 영혼은 어떻게 지낼까?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을 전제로 한 기쁨과 평안과 안식에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날에 주어질 영원한 축복을 기다리게 된다. 영혼이 그리스도와 하늘의 교제에 참여하게 되며 이미 아브라함의 품속에서 택함을 받은 형제자매들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곧 주어질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기다린다는 것이다. “성도들의 영이 모인 곳을 ‘아브라함의 품’(눅 16:22)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여정을 마친 후에 믿는 자들의 공통된 조상의 영접을 받으며 우리도 그의 믿음의 결실에 참여하게 되리라는 것을 넉넉히 보증한다.”²⁷⁾

사회에서는 종교적으로 사형 죄에 해당한다. 참조: Ibid., p.285f.

26)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교리편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2장 ‘사람의 사후 상태와 부활에 관하여’에 의하면 ‘죽은 자의 영혼은 죽거나 자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는 생을 가진다’고 말한다. ‘의로운 자의 영혼은 가장 높은 하늘에 올라가 빛과 영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들의 육신이 완전히 구속되기를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다. ‘사악한 자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져서 고통과 어두움 가운데에서 대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데 가장 높은 하늘과 지옥은 칼빈에 의하면 중간상태를 의미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⁰), p.142. 헌법구성은 교리와 정치, 권징 그리고 예배와 예식으로 구분되어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하여 만든 칼빈의 종말론 도표는 다음과 같다.

칼빈의 종말론 도표



성경은 인간의 몸을 집에 비유하고 죽을 때에 그곳을 떠난다고 한다. 베드로는 죽음이 임박한 것을 장막집을 벗을 때가 왔다고 했다(벧후 1:14). 바울 역시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고 했다(고후 5:1). 몸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갈망한다(고후 5:8). 의인의 영들이 모인 곳에 모인다(히 12:23)는 표현은 믿는 자들이 죽은 후 함께 경건한 생활에 들어간다는 말이 된다. 십자가를 지실 때 그리스도께서 오른편 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눅 23:43)고 말씀 하셨다.²⁸⁾

이 세상의 여정을 마친 후 믿음의 성도들의 영이 함께 모여 기거하면서

27) Ibid., p.931.

28) 칼빈은 낙원을 중간상태라고 했으며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도 말한다. 낙원은 아직 종말이 완성의 상태에 이르지 않은 기간이다. 낙원은 바울이 경험한 셋째 하늘과 비슷한 내용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유대인들은 죽은 자들이 예외 없이 음부에 간다고 했는데 죽은 의인들이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 때 까지 머무는 장소로 이해된다(눅 23:43, 계 2:7, 고후 12:1-4). 참조: 한인수, 『십자가의 삶』, 고린도후서 강론(서울: 도서출판 경건, 2015), p.196. 바울이 말한 셋째 하늘은 하늘의 하늘로 하나님이 계시는 지고한 장소이다. 히브리인들은 하늘을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로 구분했다.

교제하며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곳이 중간상태이다. 이곳을 낙원이나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도 칭한다(눅 16:22).²⁹⁾

특히 재세례파의 영혼 수면설에 대한 반박문으로 알려진 칼빈의 최초의 종말론에 관한 논문으로 평가를 받는 싸이코파니키아(Psychopannychia)는 죽음이후의 영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칼빈은 이 논문에서 영혼이 잠자지 않고 깨어 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한 예로서 죽은부자의 영혼이 불속에서 고통을 받는 장면과 거지 나사로의 영혼이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을 취하는 장면을 대조하여 설명한다(눅 16:19-31).

죽음 이후 신자들의 영혼은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예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종말의 완성을 기다리게 된다. 반대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타락한 영혼은 포로로 갇혀서 영원한 저주의 고통을 기다리고 있게 된다.³⁰⁾

칼빈은 영혼의 잠의 교리인 영혼수면설을 반대한다. 그 이유로는 타락한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동안 무서운 마음(φοβερὰν, 히 10:27)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루터는 마지막 날에 살아날 전인(the wholeman)의 부활에 대한 관심을 더 가졌기 때문에 그에게는 사람이 죽은 후 영혼의 상태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죽음은 단지 잠에 지나지 않는다. 무덤 속에 몸이 묻혀있는 크리스찬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확실히 다시 깨어날 수 있는 잠을 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하루밤이 지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잠에서 깨우실 것이다.”³¹⁾ 그는 죽음을 나사로의 죽음을 근거로 밤에 잠을 자는 것으

29) Ibid., p.931.

30) 배경식, 『기다림의 신학』(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p.28. 성경은 기다림에 관한 책이다.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약속에 의해 주어질 기다림이다.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기독교인들도 다시 오실 주님을 심판주로 기다리고 있다. 이 기다림은 살아있는 인간에게 만이 아니라 죽은 영혼을 포함한 온 우주를 포함한다(롬 8:19).

31) 존인. H. 퀴스토르프, 이회숙 역, 『칼빈의 종말론』(서울: 성광문화사, 1986), p.138. Weimar Edition(of Luther's Works), p.36, 547f. 루터는 흥미있는 표현을 한다. “그가 오셔서 내 작은 무덤을 노크하시면서 ‘마틴 박사야 일어나라!’고 외치실 때까지 우리는 잠을 자게 된다. 그때에 나는 눈 깜짝할 사이에 다시 살아나서 그와 영원히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로 보았다(마 9:24, 요 11:11). 죽은 자는 어린이가 요람에서 평안한 잠을 자듯이 그리스도의 품에 잠을 자는 것으로 비유를 했다. 칼빈 역시 영혼수면설을 반대하면서도 아직 성취되지 않은 종말의 성취를 바라며 기다리는 것을 ‘잠’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시 4:8).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은 소망을 가진 신앙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품과 같은 것이다(눅 16: 19-31).

2. 공포와 저주의 시간

한편 버림받은 불신자들의 영은 중간상태에서 어떻게 될까? 이들은 신자들과는 정반대로 공포와 저주 속에 거하게 된다. 한편 악인이 처하게 될 중간상태에 대해 하나님께 지나친 잔인성을 문제로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칼빈은 이에 대해서 그들이 범죄 함으로 더럽힌 하나님의 위엄과 공의에 대해 결과적으로 받게 되는 벌로 이해하였다.³²⁾

인간은 누구나 죽음 이후 영과 육의 분리가 일어나며 영혼이 주님의 재림 시까지 거하게 되는 중간상태에 들어간다. 칼빈은 인간의 삶 그 자체를 임시 거처인 장막 집으로 비유하면서 지상의 생활을 여행하는 나그네로 서술하고 있다. 칼빈이 중간상태를 설정한 것은 가톨릭이 말하는 잘못된 연속의 교리나 재 침례파의 영혼수면설을 반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일어나는 종말의 완성을 확실히 하기 위함이었다.

칼빈이 연속의 교리를 반대한 것은 이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으며 사탄의 간계에 의해 생겨난 일종의 조작된 계시이며 성경을 왜곡시킨 신성모독이라고 까지 말한다. 또한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피가 아닌 다른 곳에서 속죄를 구한다는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하게 만듦과 하나님의 자비에 참을 수없는 경멸을 가하며 우리의 신앙을 파괴시키는 것”³³⁾이라고 말한다.

32) Ibid., p.927.

중간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신자들은 기쁨과 평안을 맛보며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버림 받은 자들로서 이곳에서 재림시에 주어질 공포와 저주의 시간을 맞게 된다. 이들의 상태는 구체적으로 어둠, 울음, 이를 값(마 8:12, 22:13), 꺼지지 않는 불(마 3:12, 막 9:43, 사 66:24), 심장을 갈아 먹는 죽지 않는 벌레(사 66:24)³⁴⁾ 등이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된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고 비참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이다.

중간상태는 오직 죽은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 세상적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다. 이곳에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지나간다(벧후 3:8, 시 90:4). 눈 깜짝할 사이인 순간이다. 이는 지상에서의 시간개념이 영원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과도 같다.

칼빈이 한 가지 더 중간상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지나친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것은 유익하지 않다고 경고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이상으로 더 깊이 알려하는 것은 미련하고 경솔한 것이라고 까지 말한다. 루터 역시 신앙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쓸데 없는 공론이라고 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이 위로를 받도록 낙원으로 영접하신다는 것이다(요 12:32 참조).

V. 육체의 부활

인간의 영혼 불멸과 연계된 육체의 부활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다. 바울은 이것을 비밀이라고 했다(고전 15:51). 신자들은 성령의 도

33) Ibid., p.287. “그러므로 우리는 연옥설의 부당성을 큰 소리로 짖 먹던 힘까지 다 내어 사탄이 만들어낸 치명적인 거짓말이라고 외쳐야 한다.”

34) Ibid., p.949.

움에 의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의 변화된 몸의 상태에 이른다.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가능하다(고후 15장). 선택받은 신자들은 영광스러운 부활로, 버림받은 사람들은 파멸과 저주의 부활로 들어간다.

1. 신자의 부활

예수의 재림과 함께 중간상태에 머물던 신자들과 살아 있던 신자들의 영육의 부활이 이루어진다. 이들은 모두 새 하늘과 새 땅인 새 창조에 들어가기 위해 변화된 몸을 입게될 것이다. 이때 신자들의 부활의 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과 같은 성질의 것이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신령한 몸이다. 칼빈은 이에 대해 “본체로 보면 현재 가지고 있는 몸으로 부활할 것이지만 그 성질이 다르다고 생각해야 한다.”³⁵⁾ 그리스도께서 제물로 바쳐지신 몸으로 부활하셨지만 전혀 다른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그 몸은 다른 특성을 가진다고 보았다.³⁶⁾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미 썩어 없어진 신자들의 몸이 다시 부활하여 영혼과 재결합한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믿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일종의 하나이다. 그래서 영혼불멸설을 말한 철학자는 많아도 육신의 부활을 인정한 사람은 적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성경적인 근거로 하나는 그리스도와의 부활과의 비교이며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전능성이다.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

35) Ibid., p.939.

36) 종말에 가지게 될 특성적인 상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신학자는 요한 토비아스 베크(J. T. Beck)이다. 그의 종말론을 연구해 본 결과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세상 끝이 이루어지면 1. 새로운 체계가 이루어 지고 2. 소통이 완전해 지며 3. 세계가 영화 된다. 이것은 인간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세계만물을 포함한 전 우주적으로 된다. Kyung-Sik Pae, 『Eschatologie bei J. T. Beck』, Inaugural Dissertation zur Erlangung der Doktorwürde der Ebnagelisch Theologischen Fakultät an der Eberhard Karls Universität zu Tübingen, 1988, p. 156ff.

들의 첫 열매(고전 15:20)가 되었다. 이일은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성령에 의해 가능하다.

신자의 부활 시에 썩는 몸이 썩지 않을 성질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칼빈은 하나님의 창조의 전능성을 다시 거론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원소를 마음대로 지배하실 수 있으므로 흙과 물과 불에게 그것들에 의하여 소멸되는 것을 모두 회복시키라”³⁷⁾고 명령하신다는 것이다. 피조물의 생성소멸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그 일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이다.

중간상태에 머물던 죽은 자와 주님의 재림 시까지 살아 생존하던 사람들과의 차이는 없을까? 칼빈은 그 차이를 인정한다. “순식간에 홀연히 나팔소리가 울리면 죽은 자들은 썩지 않을 상태로 살아 날 것이며, 살아있는 자도 홀연히 같은 영광으로 변화 될 것이다”³⁸⁾(고후 15:52-53). 죽은 자들의 영이 자신의 이미 부패되어 소멸된 육체와 다시 재결합하며 살아있는 자들은 산 육체가 썩지 않을 상태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에녹과 엘리야의 산자 승천(창 5:24, 왕하 2:11)에서 보여 지는 것이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한 것이나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은 그의 몸이 이미 죽음과 유사한 과정을 거쳐 한 과정을 거쳐 변화 될 것이다.

2. 불신자의 부활

부활의 첫 열매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근거를 둔 이 부활의 사건이 불신자들에게도 일어날까? “부활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러한 질문을 제기하는 칼빈은 그리스도는 ‘부활과 생명의 주’(요 11:25)

이심을 분명히 한 후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불신자의 부활을 심판의 부활로 제시한다. 성경에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구분되어 있다(요 5:29).

심판의 부활은 무엇인가? 불신자들에게 주어지는 부활로 파멸의 부활이다. 그들은 중간상태에서 공포와 저주를 이미 경험했으며 생존자들은 지상의 삶속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의 삶(눅 16:19)이 대표적인 것이다. 그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기에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었다.

칼빈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삶을 ‘생명의 샘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³⁹⁾으로 규정한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며 그 은혜를 거부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죄 값은 스스로 자처한 것이다. 그들은 부활을 경험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주와 선생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다.⁴⁰⁾

이들에게 어떠한 주변의 변화가 일어날까? 하나님과의 교통의 단절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여주는 일들이 일어난다. 어둠과 울음, 이를 값, 꺼지지 않는 불, 심장을 값아 먹는 죽지않는 벌레 등으로 묘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의해 일어난다. 여기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주어지는 진노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접촉하는 모든 것을 살라버리는 불이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심판을 도와주는 도구들이다. 하늘과 땅, 바다와 생물과 기타 만물이 불신자를 향해 무서운 분노로 타오르며 자기를 멸망시키려고 무장했음을 느낀다고 한다.⁴¹⁾ 불신자들은 결국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살후 1:6). 해와 달과 우주 전체를 통해 장차 올 자연재해를 통한 심판의 전조를 받은바 있으나 이들의 양심이 무디

37) Ibid., p.941.

38) Ibid.

39) Ibid., p.943.

40) Ibid.

41) Ibid., p.951.

어진 채로 하루하루 살다가 겪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이 될 것이다. 노아의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이를 반증해 준다.

종말에 대한 칼빈의 종말이해를 전통적 예언문학의 종말론과 묵시문학의 종말론과 비교하면서 도표화 시키면 다음과 같다.

1	구분	전통적 예언문학의 종말론	묵시문학의 종말론	칼빈
2	주관	하나님	악한 세력	승리하신 그리스도
3	요청	집단적 회개	우주적 파멸	칭의와 성화
4	목표	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영광의 부활에 참여
5	내용	새 계약	새 창조	종말의 완성
6	모습	역사안의 역사심판(연속성)	역사와 세계 심판(불연속)	재림과 심판
7	과제	회개와 구원선포(겔 3:4)	비밀(단 8:26)	종말적 삶

VI. 기다림과 마라나타의 신앙

칼빈의 종말론을 사람들은 루터의 신앙의 종말론과 비교하여 소망의 종말론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필자는 그것을 기다림의 종말론으로 재평가하고 싶다. 칼빈의 세계관은 사도바울처럼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내세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명상하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칼빈의 『기독교강요』 서문인 프랑스 국왕에게 드리는 헌사에서 언급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면 당시 개신교도들은 프랑스 가톨릭교도들이 자행하던 방화와 재산몰수, 추방, 납치와 감금 그리고 멸시와 조롱을 견디지 못하고 주변국가로 망명을 해야 하는 심각한 무법천지의 상황에 처해있었다. 이러한 심각한 종교 탄압의 상황에서 개신교 신앙을 지키려던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

까? 가톨릭교도들의 죽음과 같은 위협 앞에서 복음주의 자들은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암울한 상황에서 종말적 삶을 임박하게 기대 했을 것이다.

한국교회 역시 일제의 잔혹한 식민지배하에서 내선일체와 문화정책을 표방하는 민족탄압과 기독교 말살정책에 반대하여 한국의 독립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해방과 함께 이어진 6.25 동족상잔의 전쟁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반동으로 여겨져 공산치하에서 수많은 순교자를 배출했다. 당시 한국교회는 모진 탄압과 억압속에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마라나타의 신앙을 회복했으며 교회가 사회 속에 우뚝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냈다.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까지 한국교회는 민족의 자주독립과 민주화는 물론 문맹 퇴치와 사회개혁에 앞장서왔었다. 오늘의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려 이단 세력의 공격은 물론 심지어 한국의 이슬람화를 꿈꾸는 적 그리스도적인 사상에 직면한 상황에서 우리가 앞장서서 할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이다(계22:20). 그리스도의 기다리는 사람에게 기쁨과 평안의 만남이 주어지며 재림을 준비하는 고난의 삶속에서 이를 극복할 힘이 주어지게 된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는 대상은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다(롬 8:21).

한마디 더 언급할 칼빈의 말은 “종말은 신비의 사건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관심과 상상을 하지 않는 것이 신앙적으로 유익하다”⁴²⁾는 것이다. 이 말은 종말에 관한 한 인간의 사변적인 다양한 이론이나 의견보다 성경적인 내용으로 만족해야 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결의 첩경은 우리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게 될 때까지 ‘거울’과 그 ‘희미함’을 만족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다”⁴³⁾(고전 13:12).

42) Ibid., p.947.

43) Ibid., p.949.

VII. 결 언

칼빈의 종말론은 단순히 '세상 끝에 관한 교리가 아니라 종말의 기간을 예수님의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하여 재림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설정하고서 해석하는 이론이다. 엄격히 말하면 종말은 공생애로부터 시작되어 재림에 완성된다고 보여 진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사역과 연관이있기 때문에 기독교적 구원종말론이라고 할 수 있다.

칼빈의 종말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세계관 이해가 중요하다. 그는 세상을 십자가의 훈련의 장, 신앙적 싸움터 그리고 내세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곳으로 보았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음이후의 영생에 대해 소망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세상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십자가의 훈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신앙적 삶에 들어가게 된다. 그것은 내세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신앙적으로 세상적인 가치관과 싸워 이겨 나갈 때 가능하다.

신자들이 세상에서 '도살당할 양같이 살기 위해서는 말씀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때 필요한 것이 십자가를 명상하며 사는 것과 내세에 대한 소망과 기다림이다.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영육이 분리되어 육체는 썩어 부패하게 되어 없어진다. 그러나 신자들의 영은 그리스도와 먼저 간 신자들이 영과 교제하게 되며 그곳에서 평안과 기쁨을 가지게 된다. 불신자들의 영은 공포와 저주의 상태에서 지내게 된다. 이것을 칼빈은 영혼의 중간상태라고 칭하였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죽은 자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중간상태에 머무른다.

중간상태는 영혼의 불멸성을 지지하면서 동시에 영혼수면설을 거부한다. 이 중간상태를 칼빈은 낙원(눅 23:43)이나 아브라함의 품(눅 16:22)이라고 불렀다. 중간상태는 연옥설과는 전혀 다른 죽은 자의 영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머무르는 곳이다.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육체의 부활이 일어난다. 죽은 자의 영은 육체와 재결합하고 변화를 받아 자기 영광과 과멸의 부활에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선택받은 사람들은 산자나 죽은 자 모두 변화를 받아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유기된 사람들은 영원한 과멸에 들어가게 된다.

종말의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종말신앙이다. 종말신앙은 기다림과 마라나타의 신앙이다. 한국 교회의 중요한 전통인 권징과 선교의식과 회개가 희미해 지고 물질만능주의와 교권주의적인 정치가 돋보이는 상황에서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주님의 거룩한 지상 명령에 순응하는 길은 칼빈의 종말론을 재인식하는 성화의 삶이라고 보여 진다. 칼빈의 종말론을 재인식하고 교회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한국교회의 잘못된 종말론을 시정하고 이단세력에 대응하는 전기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기철. 『시간문제와 종말론』. 시간의 철학과 시간의 신학(서울: 한들출판사, 2000).
- 김은수. “칼빈의 영혼불멸교리와 개인종말론에 대한 소고.” 『칼빈연구』 제5집.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8.
- 니브, J. L. & O. W. 헤이그. 『기독교교리사』. 서남동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⁰).
- 배경식. 『경건과 신앙』(서울: 장로교출판사, 1988).
- _____. 『기다림의 신학』(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 양신혜. “칼빈의 종말론.” 『종말론』- 한국조직신학회 기획 시리즈 4.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 오명현. 『신천지(이만희)의 요한계시록 허구에 대한 변론』(서울: 도서출판 엔크, 2015).
- 조성노 편. 『역사와 종말』. 서울: 현대신학연구소, 1992.
- 최윤배. “부처와 칼빈의 종말론.” 『칼빈연구』. 제2집.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 칼빈, 존. 『영한기독교강요』. 편집부 번역. 서울: 성문출판사, 1993.
- 퀴스도르프, H. 이희숙 역. 『칼빈의 종말론』. 서울: 성광문화사, 1986.
- 트래비스, 스테펜 H. 김근수 역. 『종말론 해설』.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8.
- 한인수. 『순례자의 식탁』. 제10권. 서울: 도서출판 경건, 2012.
- _____. 『십자가의 삶』, 고린도후서 강론(서울: 도서출판 경건, 2015).
- 허호익. 『길선주 목사의 목회와 신학사상』(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 황정욱. “칼빈의 종말론.” 『칼빈 1: 칼빈신학개요』.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9.
- Bengel, J. A. “Gnomon.” Zeiger des Neuen Testaments, eine Auslegung desselben in forlaufenden Anmerkungen, Zweiter Band, C. J. Werner (Hrsg.), Basel: Druck und Verlag von Ferd. Riehm.
- Pae, Kyung-Sik. “Eschatologie bei J. T. Beck.” Inaugural Dissertation zur Erlangung der Doktorwürde der Ebnagelisch Theologischen Fakultät an der Eberhard Karls Universität zu Tübingen, 1988.
- Beck, J. T. Vorlesungen über Christliche Glaubenslehr. Zweiter specieller Theil. Gütersloh: Druck und Verlag von C. Bertelsmann, 1887.

개혁의 확립을 위한 신학적 기초: “제네바 신앙고백”(1537)의 교회론 연구*

김요섭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I. 서론: 종교개혁 시대 신앙고백서의 역할과 의의

16세기 유럽 여러 지역에서 나타난 신앙고백서들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개신교회들이 공동체적 노력을 통해 간략하면서도 정교하게 작성한 개혁의 원리 진술들이었다. 따라서 신앙고백서들에 나타나는 진술상의 특징들과 신학적 강조점들을 검토하는 것은 종교개혁 시대 각 개신교회가 경험했던 다양한 상황과 그 속에서도 일관되게 강조했던 종교개혁의 목적을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하다. 1537년 제네바 시의회가 공식적으로 채택한 “제네바 신앙고백서” 역시 당시 불어권 스위스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종교개혁의 목적과 원리를 밝히고 이에 따라 종교개혁을 실제로 확립하기 위해 작성되었다.¹⁾ 이 신앙고백서는 제네바 종교개혁의 신학적 기준이었을 뿐 아니라 그

* 본 논문은 2015년 10월 19일 한국칼빈학회 정례발표회에서 발표되었으며 「성경과신학」 제76권(2015.10), 209-243에 게재된 논문이다.

1) 제네바의 개혁자들은 실질적인 개혁의 확립을 위해 1537년 “교회설립서안”(Articles)과 “신앙교육서”(Instruction, Catechisme), 그리고 “신앙고백서”(Confession)를 작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각 문서의 불어 원문은 순서대로 다음에서 인용한다. “Articles concernant l’organisation de l’église et du culte à Genève, propoés par les ministers”, OS.1: 369-377, “Instruction et